

건강을 지키는 현장

“사랑의 보청기 구입”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아인들의 작은 불빛

농아선교단체 “반딧불”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풍조가 팽배한 요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생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작은 모임이 있다.

가톨릭 농아선교단체 “반딧불”

농아인들의 대화를 도와주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일을 10년이 넘도록 해오고 있는 반딧불의 수화활동은 메말라 가는 이 시대의 작은 불빛이 되고 있다.

농아인들에게 보청기를 선사하기 위해 이 추운 겨울 거리에서 카세트테이프를 팔고 있다는 그들의 활동상을 들어봤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현장

농아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농아인과 함께 하기를 10년이 넘도록 이어져오고 있는 반딧불.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봉사단체”라는 꼬리표가 붙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희가 농아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께 무엇을 배운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분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가톨릭 농아선교회 “반딧불”의 회장을 맡고 있는 손찬모(28세)씨의 이야기다.

많은 시간을 반딧불에 할애하는 회원들

반딧불이 창립된 것은 10여년 전의 일이다. 농아인들의 복지증진과 신앙적인 도움을 위해 만들어진 반딧불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일했고 지금도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저희 회원들의 대부분이 직장인들입니다. 주로 20세부터 32세 사이의 분들입니다. 다들 바쁘신데도 적지 않은 시간을 반딧불 활동에 할애하고들 계십니다.』라는 손찬모씨의 말처럼, 이들은 일주 일 중의 꽤 여러 날을 농아인들을 위해 보내고 있었다.

농아인을 위한 언어 통역이 주된 일

대부분의 가톨릭신앙인인 이들의 활동을 보면 실로 다양하다. 매주 일요일 미사 때에는 농아인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있으며,

불우한 청각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보청기 구입 기금 마련”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손찬모 회장은 말한다.

(사진 우측)



건강을 지키는 현장

농아인 교리교육 보조·주일학교 교육 등도 이들이 매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다. 또한 밝은 모습을 갖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월 2회 방문하고 평택에 있는 농아양로원을 방문하기도 한다. 그 외에 병원진료와 급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농아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역해 주는 일도 하고 있고 매주 1회씩 회원들끼리의 모임을 가져 자신들의 활동을 반성해 보기도 한다고.

사랑의 보청기 구입 마련 Tape 판매도

반딧불의 활동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랑의 보청기 기금 마련을 위한 Tape 판매”이다.

『불우한 청각장애 어린이들에게 보청기를 지급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Tape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에게”라는 노래 Tape로 가격은 3천원입니다. 판매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하고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한분 한분의 손길이 아쉬운 실정입니다.』라고 손희장은 말한다. 사랑의 보청기 구입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톨릭사회복지회 재활사업부(777-4517)로 연락해 달라고 손씨는 덧붙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반딧불은
기도하고 있다.

농아인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다

한편 반딧불 회원들은 요즘의 농아인들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을 무척 안타까워 하고 있다.

『농아인들은 무슨 나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입니다. 길에서 그들과 마주치면, 이상한 눈길을 준다든가 저만큼 피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아인들도 저희들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단지 듣지 못한다는 것외에는 저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요.』라는 반딧불 회원들은 사람들이 농아인들을 보다 평범하게, 보다 따뜻하게 보아주길 당부한다.

수화교육 수료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반딧불의 회원이 되려면, 가톨릭 농아선교회나 다른 수화단체가 실시하는 수화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수료하면 되며, 종교는 무엇이든 관계가 없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가톨릭 농아선교

건강을 지키는 현장

회(995-7394)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손찬모 회장은,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틀림없이 많은 보람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수확”을 통해
농아인들의 대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반딧불의
주된 활동



반딧불의 작은 불빛따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경제적 불황, 외국상품의 무분별한 유입 등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경종에도 불구하고 과소비 풍조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나만 잘살면 되고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요즘, 그러한 세대의 한쪽 편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채 살고 있다.

시대적 사조라고 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픈, 우리의 노인들이 거리로 밀려나고 있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점차로 혐악해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의 아픔을 굶주림보다도 더 강하게 감내해야만 한다.

그러나, 고개를 돌린 그 많은 사람들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농아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반딧불 회원들과 여러 봉사단체 회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시대는 아직 희망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모두 저들의 작은 빛을 따라 일어서야 한다. 바른 일에 고개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불빛을 키워 나가야 한다. ㉞